

우리가
알아야 할
습지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Contents

| | |
|----------------------|----|
| 1. 습지의 정의 | 06 |
| 2. 습지의 유형과 분류 | 09 |
| 3. 습지 기능과 가치 | 13 |
| 4. 우리나라 습지현황 | 16 |
| 5. 습지의 위기 | 21 |
| 6. 습지 보전의 필요성 | 23 |
| 7.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정책 | 24 |
| 8. 습지를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 25 |
| 부록 | 26 |

우리가 ... 알아야 할 ... 습지

습지는 땅과 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자연생태계로 인간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머물고 스며드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뿐 아니라, 물의 순환과 정화, 홍수 조절, 탄소 저장 등 생태계 조절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개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습지의 약 60%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립과 오염, 유입 물질 변경 등의 요인으로 많은 습지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고, 전국의 주요 습지를 조사·보호하며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의 ‘현명한 이용(Wise Use)’ 원칙에 따라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의 중요성이 커지며, 습지는 단순한 보전 대상이 아닌 미래 환경 정책의 핵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의 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이해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모여 건강한 습지생태계가 미래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1. 습지의 정의

습지(濕地, wetland)는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의미합니다.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거나 또는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곳으로,

땅(육상생태계)과 물(수생태계)의 전이(중간)지대라 불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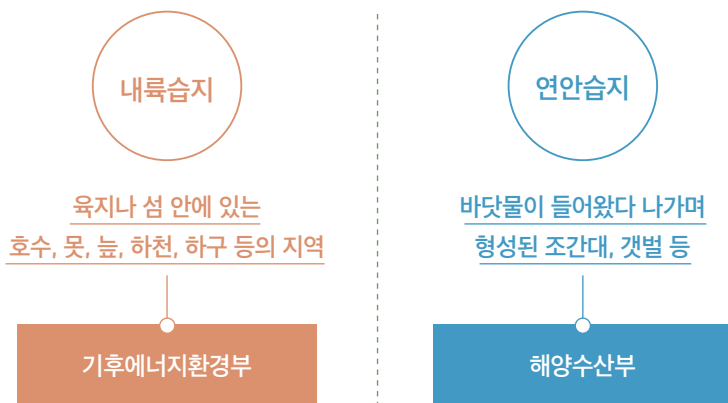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¹⁾의 습지 정의가 널리 사용됩니다. 람사르협약에서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고여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기수·염수든 관계없이 소택지, 이탄지, 수역 등을 모두 습지로 정의하며, 간조 시 수심 6m 이하의 해역도 습지에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를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표를 덮고 있는 지역으로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내륙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이하 기후부),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어 1975년 발효됨. 정식 명칭은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임.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습지를 토양의 수분 상태, 수생 식생, 생태학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정의합니다. EPA에 따르면, 습지는 물에 의해 주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화된 토양을 가진 지역으로 물기가 많은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 자라며, 늪, 소택지, 습원 등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습지는 정의하는 관점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땅과 물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특별한 생태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습지의 유형과 분류

습지는 물의 기원, 식생, 위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람사르협약의 습지유형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Wetland Type)입니다. 이 체계는 1990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수문학적 특성(물의 기원, 분포, 순환 등)을 중심으로 크게 내륙습지, 연안습지, 인공습지로 구분되며, 각 지역의 주요 습지 서식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총 4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습지보전 정책 초기에는 람사르협약의 습지유형분류체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는 전 지구적인 기후와 수문, 지형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4년 기후부는 유엔 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을 받아 UNDP/GEF 국가습지 보전사업단을 설립하여 2010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습지유형분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적용이 다소 복잡한 문제로 기후부는 습지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형 및 수문 조건(물의 공급과 범람 빈도)을 기준으로 2011년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를 재확립하였습니다.

이 체계는 습지를 크게(대분류) 내륙습지, 연안습지, 인공습지로 구분하고, 중분류, 소분류를 통해 총 3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습지 보전, 이용, 복원 전략을 수립하는 근거로 현재 국가 습지조사와 관련 정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습지유형분류체계 기준

- 대 분 류: 습지의 입지(내륙/연안) 및 형성과정(자연적/인위적)에 따라 내륙 습지, 연안습지, 인공습지로 구분
- 중 분 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하천형, 호수형, 산지형, 연안 등으로 구분
- 소 분 류: 습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습지의 보전 및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수원과 범람빈도 및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 상세분류: 식생, 토양, 수문을 고려한 우리나라 습지의 기질과 분포 형태를 나타냄

● 우리나라 습지유형(대분류)

내륙습지

호수, 하천, 늪 등과 같이 내륙 지역에 위치하며, 담수나 기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표면을 덮는 습지. 자연 상태에서는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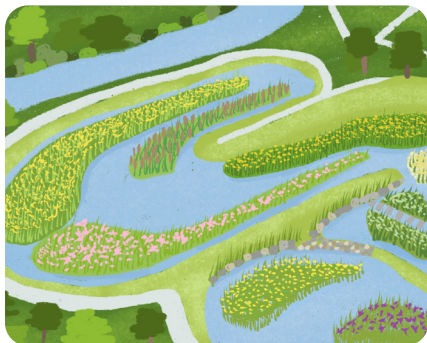
연안습지

바닷가와 맞닿은 지역에 형성된 습지. 조간대, 갯벌, 석호 등과 같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 해양생물의 서식지 제공, 갯벌 정화, 해안 보호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



인공습지

인간의 목적에 따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 오염물질 정화, 수자원 관리, 생태복원, 경관 조성 등 다양한 기능(목적)을 수행



우리나라
습지유형
분류체계

Classification
System for
Wetland Type

| 대분류 | 중분류(지형) | 소분류(수원/범람) | 상세분류(식생, 토양, 수문) | 기호 | 비고(특성) |
|----------|---------|------------|------------------|-----|---------------------|
| 내륙 습지 | 하천형 | 기수역 | 하구갯벌습지 | R1 | 하구 |
| | | | 하구삼각주습지 | R2 | |
| | | | 하구염습지 | R3 | |
| | | 유수역 | 하도습지 | R4 | 제외지 |
| | | | 보습지 | R5 | 보의 축조로 형성된 습지 |
| | | 정수역 | 배후습지 | R6 | 제내지 범람원 |
| | | | 용천습지 | R7 | 용출천 |
| | 호수형 | 기수역 | 석호습지 | L1 | 기수/염수 |
| | | | 간척호습지 | L2 |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기수/염수) |
| | | 담수역 | 담수호습지 | L3 | 자연호수습지와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 |
| | | | 우각호습지 | L4 | 담수호, 석호구하도 |
| | | | 사구습지 | L5 | 해안/하안 |
| | 산지형 | 강우 | 고층습원 | M1 | 이탄습원, 산성습원 |
| | | 지중수 | 저층습원 | M2 | 계절적/영구적 습원 |
| | | 지중수/지표수 | 저습지 | M3 | 추수성 수생식물, 이탄지 |
| | | | 소택지 | M4 | 관목우점 늪, 묵논 |
| 연안 습지 | 연안 | 조하대 | 해양수초대습지 | C1 | 수초대 |
| | | | 산호습지 | C2 | 산호초 |
| | | | 해양습지 | C3 | 고결/미고결대 |
| | | 조간대(조상대) | 연안수초대습지 | C4 | 수초대 |
| | | | 암석해안습지 | C5 | 암석해안 |
| | | | 갯벌습지 | C6 | 미고결대 |
| | | | 해빈습지 | C7 | |
| | | | 염습지 | C8 | |
| 인공 습지 | 연안 | 염전 | 염전 | Hc1 | 염전/폐염전 |
| | | 양식장 | 연안양식장 | Hc2 | 양식장 |
| | 내륙 | 인공호 | 인공호습지 | H1 | 인공댐, 저수지 |
| | | 농경지 | 논 | H2 | 경작지(논) |
| | | 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지 | H3 | 양식장/뽕시터 |
| | | 용수로 | 인공수로습지 | H4 | 관개 및 연락수로, 어도 |
| | | 조성습지 | 저류지습지 | H5 | 저류지/양수장 |
| | | | 수질정화습지 | H6 |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
| | | | 대체습지 | H7 | 새로 복원된 습지 |
| | | | 생태수변공원 | H8 | 도시공원 |
| | | 인공웅덩이 | 채굴지습지 | H9 | 채굴지 |

3. 습지의 기능과 가치

습지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 중 하나로 평가되며 미생물에서 식물, 곤충, 포유류까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서식처)입니다. 동시에 습지는 물을 저장하고 정화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생태적, 자원·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3-1. 습지의 기능

가. 홍수 조절 및 수자원 관리

습지는 강우 시 물을 흡수·저장해 하류로 유입되는 유량의 속도를 늦추고 범람을 완화하여 홍수를 예방합니다. 가뭄 시에는 저장된 물을 서서히 방출해 하천 유량과 지하수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자연 댐과 저수지 같은 역할로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나. 수질 정화

습지는 식물, 미생물, 토양을 통해 물속 오염물질과 과도한 영양염류를 제거하며, 하류로 흐르는 물을 정화합니다. 이 과정은 부영양화를 완화하고 수생태계 건강을 유지하며 인간에게 깨끗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합니다.

다. 생물다양성 유지

습지는 조류, 어류, 양서류, 곤충 등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번식지입니다.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에게도 중요한 서식처가 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 탄소 저장 및 기후 조절

습지는 토양과 식생에 탄소를 저장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온실가스 증가를 완화합니다. 유기물 층을 통해 장기간 탄소를 고정하고 지역의 미기후와 물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주변 환경과 인간 생활을 안정화합니다.

마. 침식 방지 및 토양 유지

습지는 강가, 하천, 해안 등에서 토양을 고정하고 유실을 막습니다. 식물 뿌리와 토양 구조가 물 흐름을 완화하여 침식을 최소화하여 농경지와 주변 환경을 보호합니다.

3-2. 습지의 가치

가. 생태적 가치

습지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번식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의 보전에 중요한 서식처로 기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지원하며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과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입니다.

나. 자원·경제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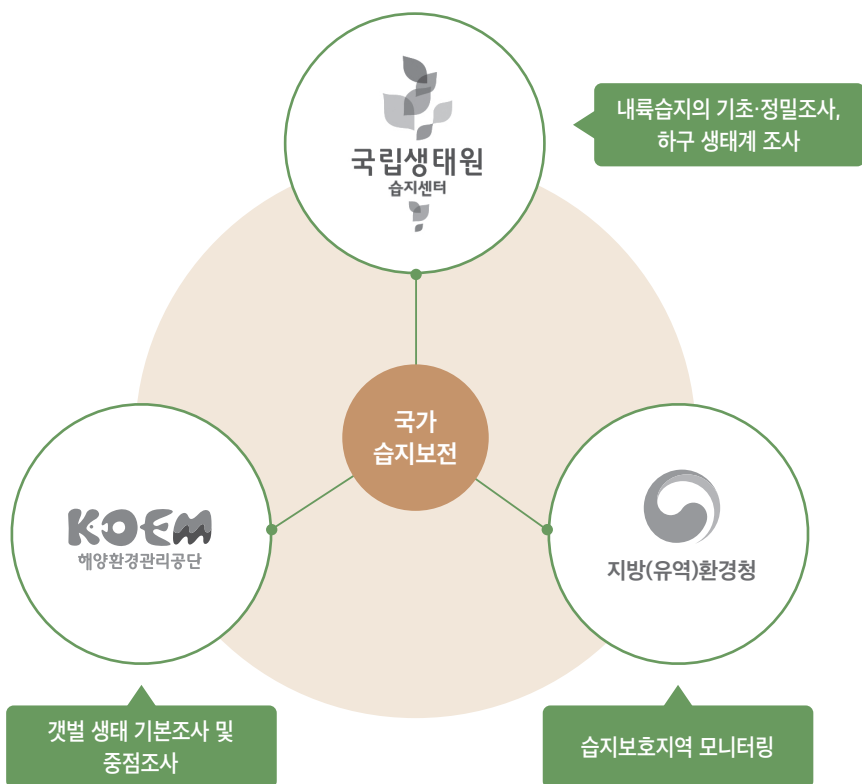
습지는 어업, 농업, 식수 등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원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생계와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생태관광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사회·문화적 가치

습지는 인간의 생활, 문화,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나 신앙, 문화가 함께 형성된 곳도 많으며 최근에는 교육, 연구, 생태체험 등 다양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4. 우리나라 습지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습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이 조사는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지방(유역)환경청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록화된 우리나라 습지는 내륙습지 1,153.6km²(기후부, 2022), 연안 습지 2,443.3km²(해양수산부, 2023)로 총면적은 약 3,596.9km²입니다. 2,708개소의 내륙습지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에코뱅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습지에 대한 현황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해양환경 정보지도 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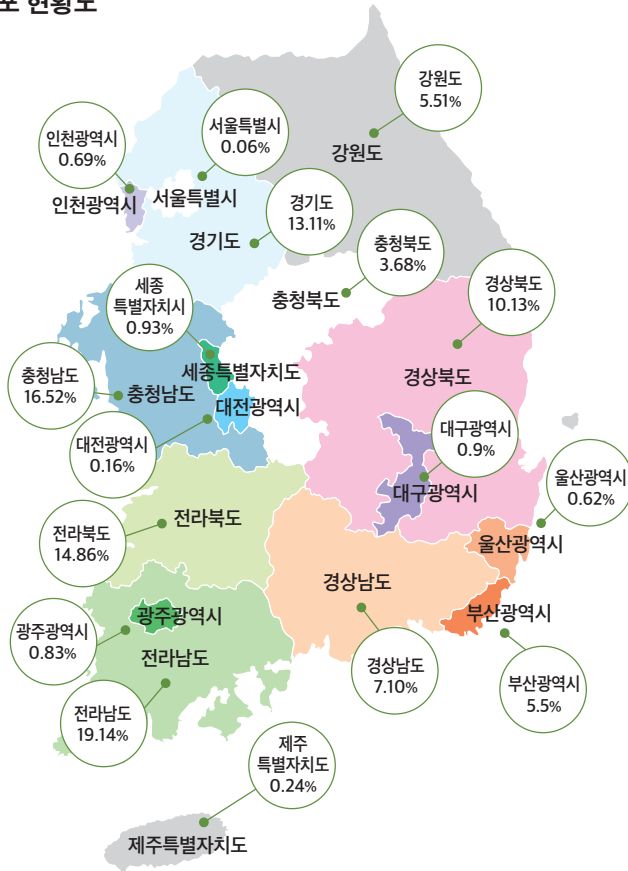
이 중 습지보호지역³⁾으로 지정된 곳은 총 58개소(기후부 지정 33개소, 해양수산부 지정 17개소, 시·도지사 지정 7개소), 람사르습지⁴⁾로 등록된 곳은 총 26개소입니다. 이들 습지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국가 '우수 습지'로 지속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 현재 관련부처에서 제공되는 습지 정보는 5년 단위로 공개

3) 우리나라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습지의 자연 생태가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4)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식물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내륙습지 분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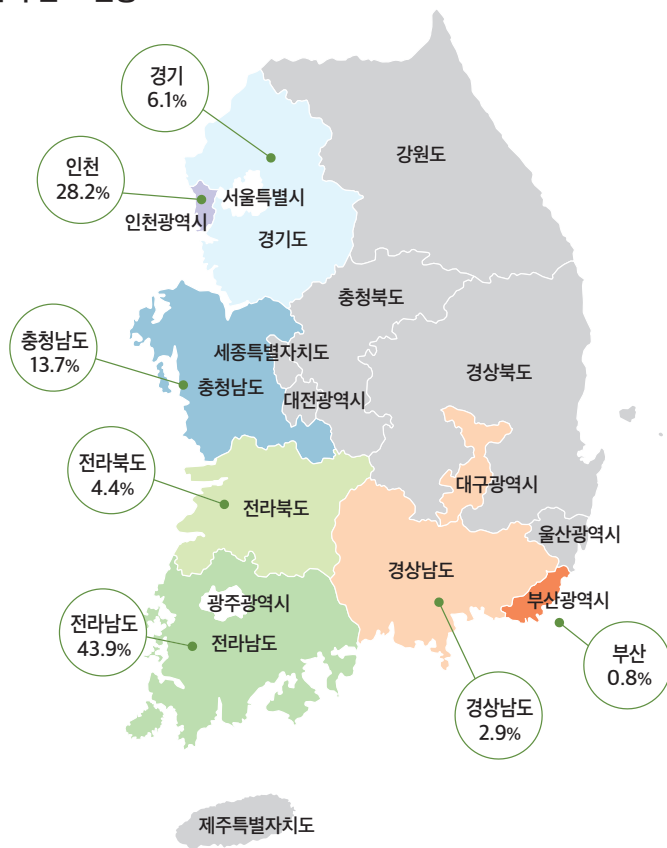


| 지역 | 면적(km²) | 비율(%) |
|---------|---------|-------|
| 서울특별시 | 0.7 | 0.06 |
| 부산광역시 | 63.5 | 5.50 |
| 인천광역시 | 8.0 | 0.69 |
| 대구광역시 | 10.4 | 0.90 |
| 대전광역시 | 1.9 | 0.16 |
| 광주광역시 | 9.6 | 0.83 |
| 울산광역시 | 7.2 | 0.62 |
| 세종특별자치시 | 10.7 | 0.93 |
| 제주특별자치시 | 2.8 | 0.24 |

| 지역 | 면적(km²) | 비율(%) |
|------|---------|--------|
| 강원도 | 63.6 | 5.51 |
| 경기도 | 151.2 | 13.11 |
| 충청남도 | 190.6 | 16.52 |
| 충청북도 | 42.4 | 3.68 |
| 전라남도 | 220.8 | 19.14 |
| 전라북도 | 171.4 | 14.86 |
| 경상남도 | 81.9 | 7.10 |
| 경상북도 | 116.9 | 10.13 |
| 합계 | 1,153.6 | 100.00 |

※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환경부, 2022)

연안습지 분포 현황도



| 지역 | 면적(km ²) | 비율(%) |
|-------|----------------------|-------|
| 인천광역시 | 688.6 | 28.2 |
| 경기도 | 147.4 | 6.1 |
| 충청남도 | 335.7 | 13.7 |
| 전라북도 | 108.4 | 4.4 |
| 전라남도 | 1,070.8 | 43.9 |
| 경상남도 | 69.8 | 2.9 |
| 부산광역시 | 19.0 | 0.8 |
| 합계 | 2,443.3 | 100.0 |

※ 2023년 전국갯벌년적조사(해양수산부, 2023)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란사르습지 등록 현황

[범례]

● 습지보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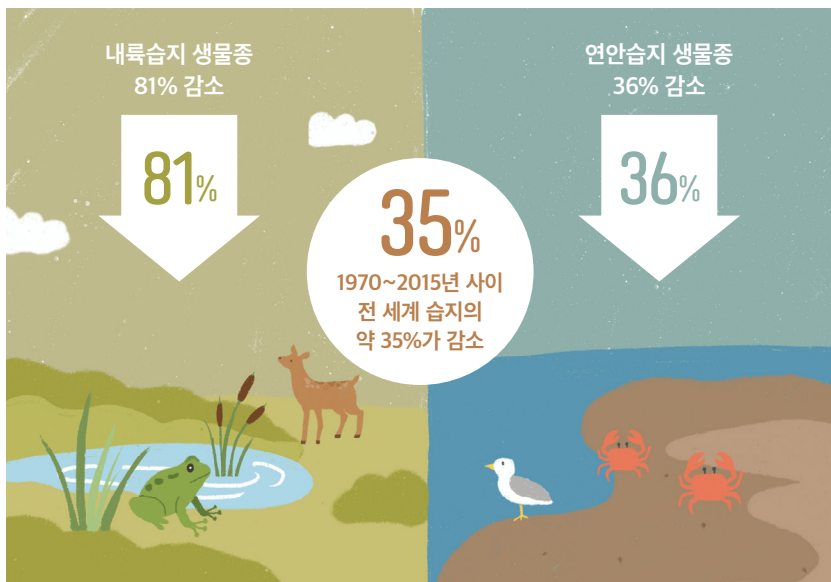
★ 란사르습지

▲ 중복지정지역



5. 습지의 위기

우리 주변의 많은 습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15년 사이 전 세계 습지의 약 35%가 감소했으며 이는 산림 손실 속도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습지에 의존하는 생물 중 약 4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1940년 이후 내륙습지 생물종은 81%, 해안 및 연안습지 생물종은 36%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습지 훼손의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습지를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고 논과 밭, 주거지, 공장 부지, 도로 등으로 무분별하게 매립·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습지는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였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습지생태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수량 변화, 홍수와 가뭄의 빈도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은 습지의 수위와 습도를 변화시켜 기존 생물들이 서식하기 어렵게 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은 연안습지를 침수시키고 염분 농도를 높여 해당 지역의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습지는 여러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농약 등의 오염물질 유입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외래생물의 침입은 토착종의 서식 환경을 변화시켜 생물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발, 쓰레기 투기, 무분별한 이용은 습지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요인들은 단순히 습지 훼손에 그치지 않습니다. 습지가 제공하던 홍수 조절, 수질 정화, 탄소 저장 등의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가 약화되면 이는 인간 생활에도 물 부족, 홍수 피해, 생태계 붕괴 등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습지 보전의 필요성

습지는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탱하는 생태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제 습지의 보전과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입니다.

습지는 막대한 양의 탄소를 흡수·저장하여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습지가 훼손되면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의 기능도 상실되어 기후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습지를 지키다는 것은 곧 미래 세대가 살아갈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또한 습지는 물순환을 유지하고 수자원을 보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시에는 물을 저장·방출함으로써 사람들의 삶과 농업, 산업 활동을 돕습니다. 나아가 수질을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은 인공 시설로는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륙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륙습지 약 1,000 곳에서 6,700종이 넘는 야생생물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기후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중 116종(약 41%)이 습지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습지는 그 자체로 수많은 생명들이 의존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습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습지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인간의 안전, 생태계의 회복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7.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정책

습지 보전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새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의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1971년, 이란의 도시 람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람사르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현재 17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여러 습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람사르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습지 보전 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아울러 「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정책은 단순히 습지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 습지를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습지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습지를 방문할 때

-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기
- 식물이나 동물은 함부로 채취하지 않기



생활 속 친환경 습관

- 일회용품 줄이기
-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지역 활동 참여

- 생태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참여
- 가족·친구와 자연 지식 나누기



관심과 지지

- 습지 보전 정책과 활동에 관심 갖기
- 주변 사람들과 습지 중요성 공유

부록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지

산지습지

산악 지역의 환경사지나 분지에
형성된 습지로 기후, 지형, 수문학적
조건에 따라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함
희귀한 생물과 식생이 서식하고
수원 공급, 홍수 조절, 탄소 저장 등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함

산지습지

논습지

벼농사를 위한 논 지역의 습지로
기능하며, 수자원을 저장하고,
수질 정화 및 생물 서식처를 제공함
농업 활동과 생태적 기능이 결합된
대표적인 인공습지임

논습지

하천습지

하천습지

하천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로, 홍수 완화, 유속 조절, 토양
침식 방지, 생물 서식지 제공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제공함
하천과 육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완충 지역임

정화습지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로,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침전시키는 역할을 함
자연적인 정화 과정을 활용하여 수질 개선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유용함

정화습지

인공습지

환경 복원, 수질 개선,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습지임
자연 습지의 기능을 모방하여 설계되며, 도시화 지역이나 산업 지역에서도 적용됨

인공습지

연안습지

해안선 주변에 위치한 습지로, 주로 염분을 포함한 물이 흐르는 갯벌, 염습지 등이 포함됨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를 연결하며, 기후 조절과 어류의 산란지 역할을 수행함

연안습지

부록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2024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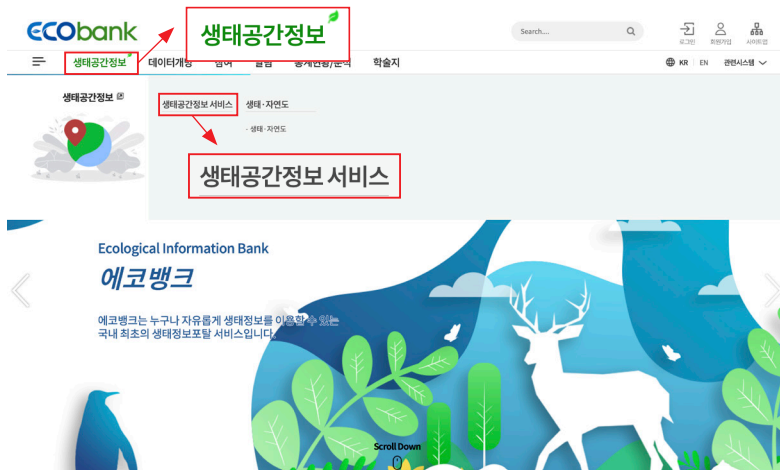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33개소, 137.741km ²) | | | |
|---|-------------|--------------------------|------------------|
| 지역명 | 지정일자 | 면적(km ²) | 비고 |
| 낙동강하구 | 1999.08.09. | 1999.08.09. | |
| 대암산용늪 | 1999.08.09. | 1.360 | 람사르습지 |
| 우포늪 | 1999.08.09. | 8.652 (개선지역: 0.105) | 람사르습지 |
| 무제치늪 | 1999.08.09. | 0.184 | 람사르습지 |
| 제주 물영아리오름 | 2000.12.05. | 0.309 | 람사르습지 |
| 화엄늪 | 2002.02.01. | 0.124 | |
| 두웅습지 | 2002.11.01. | 0.067 | 람사르습지 |
| 양산 능결산 산지습지 | 2004.02.01. | 0.308 | |
| 담양하천습지 | 2004.07.08. | 0.981 | |
| 신안 장도 산지습지 | 2004.08.31. | 0.090 | 람사르습지 |
| 한강하구 | 2006.04.17. | 60.668 | 람사르습지 (일부:장항) |
|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 2006.12.28. | 0.587 | |
| 제주 1100고지 | 2009.10.01. | 0.126 | 람사르습지 |
| 제주 물장오리오름 | 2009.10.01. | 0.610 | 람사르습지 |
| 제주 동백 동산습지 | 2010.11.12. | 0.590 | 람사르습지 |
| 고창 운곡습지 | 2011.03.14. | 1.930 (개선지역: 0.133) | 람사르습지 |
| 상주 공검지 | 2011.06.29. | 0.264 | |
| 영월 한반도습지 | 2012.01.13. | 2.772 (주변관리지역: 0.857) | 람사르습지 |
| 정읍 월영습지 | 2014.07.24. | 0.375 | |
| 제주 숨은물뱅디 | 2015.07.01. | 1.175 (주변관리지역: 0.875) | 람사르습지 |
| 순천 동천하구 | 2015.12.24. | 5.656 (개선지역: 0.263) | 람사르습지 |
| 섬진강 침실습지 | 2016.11.07. | 2.037 | |
| 문경 돌리네 | 2017.06.15. | 0.494 | 람사르습지 |
| 김해 화포천 | 2017.11.23. | 1.298 | |
| 고창 인천강하구 | 2018.10.24. | 0.722 | |
| 광주광역시 장록 | 2020.12.08. | 2.735 (개선지역: 0.031) | |
| 철원 용양보 | 2020.12.08. | 0.519 | |
| 충주 비내섬 | 2021.11.30. | 0.920 | |

| 경남 고성 마동호 | 2022.02.03. | 1.079 | |
|---|-------------|--------------------------|-------|
| 순천 와룡 산지습지 | 2022.12.30. | 0.899 | |
| 대전 갑천 | 2023.06.05. | 0.901 | |
| 철원 이길리 | 2023.12.29. | 1.390 | |
| 영양 장구메기 | 2024.09.10. | 0.045 | |
| 해양수산부 지정 (17개소, 1,604.97km ²) | | | |
| 지역명 | 지정일자 | 면적(km ²) | 비고 |
| 무안갯벌 | 2001.12.28. | 42.0 | 람사르습지 |
| 진도갯벌 | 2002.12.28. | 1.44 | |
| 순천만갯벌 | 2003.12.31. | 28.0 | 람사르습지 |
| 보성·별교갯벌 | 2003.12.31. | 33.92 | 람사르습지 |
| 웅진 장봉도 갯벌 | 2003.12.31. | 68.4 | |
| 부안줄포만 갯벌 | 2006.12.05. | 4.9 | 람사르습지 |
| 고창갯벌 | 2007.12.31. | 64.66 | 람사르습지 |
| 서천갯벌 | 2008.01.30. | 68.09 | 람사르습지 |
| 신안갯벌 | 2018.09.03. | 1,100.86 | 람사르습지 |
| 마산만 봉암갯벌 | 2011.12.16. | 0.1 | |
| 시흥갯벌 | 2012.02.17. | 0.71 | |
| 대부도갯벌 | 2017.03.22. | 4.53 | 람사르습지 |
| 화성 매항리갯벌 | 2021.07.20. | 14.08 | |
| 고흥갯벌 | 2022.12.29. | 59.43 | |
| 사천 광포만 | 2023.10.23. | 3.46 | |
| 제주 오조리 | 2023.12.21. | 0.24 | |
| 여수 갯벌 | 2024.07.30. | 38.81 | |
| 시·도지사 지정 (7개소, 8.254km ²) | | | |
| 지역명 | 지정일자 | 면적(km ²) | 비고 |
| 대구 달성습지 | 2007.05.25. | 0.178 | |
| 대청호 추동습지 | 2008.12.26. | 0.346 | |
| 송도갯벌 | 2009.12.31. | 6.11 | 람사르습지 |
| 경포호·가시연습지 | 2016.11.15. | 1.314 (주변관리지역: 0.007) | |
| 순포호 | 2016.11.15. | 0.133 | |
| 쌍호 | 2016.11.15. | 0.139 (주변관리지역: 0.012) | |
| 가평리습지 | 2016.11.15. | 0.034 | |

| 내륙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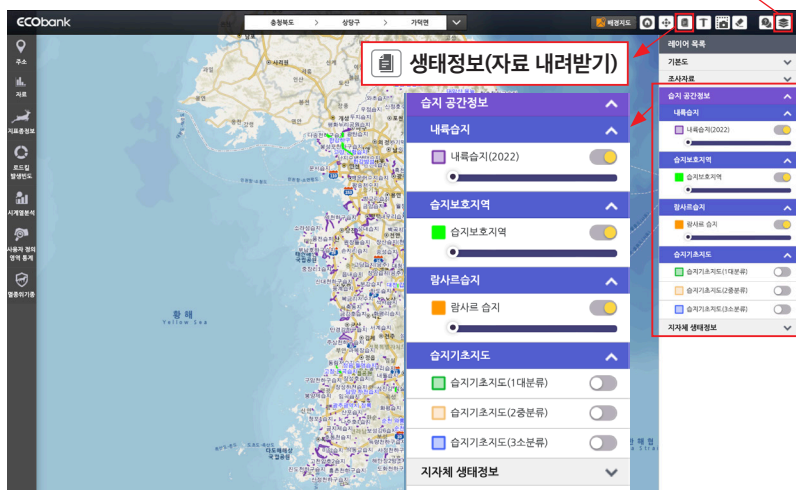
에코뱅크 홈페이지(<https://www.nie-ecobank.kr>)

- 메뉴 상단 생태공간정보 > 생태공간정보 서비스 -> 팝업창 생성



- 레이어목록 > 습지 공간정보(활성화), 생물정보(해당 자료 내려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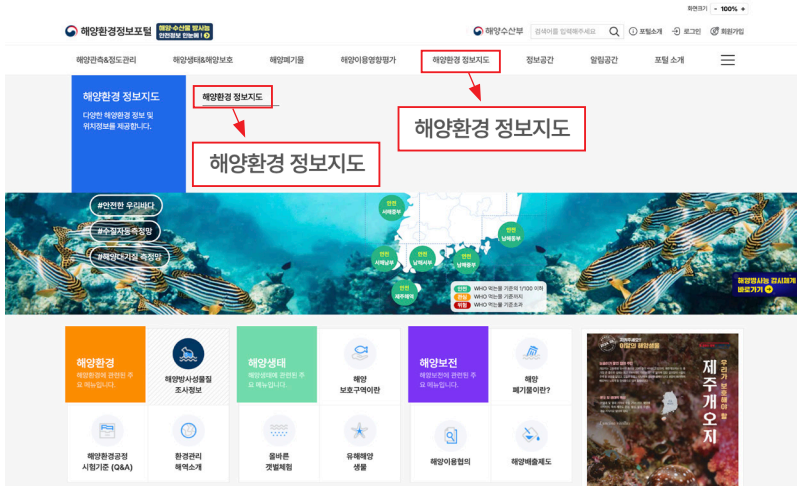
레이어 목록/습지 공간정보



| 연안습지

해양환경정보 포털(<https://www.meis.go.kr/portal/main.do>)

- 해양환경 정보지도 서비스 > 메뉴 상단 해양환경 정보지도 서비스 -> 팝업창 생성



- 연안 주제도 > 갯벌에서 연안습지, 해양보호구역 / 관련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참고자료

전국내륙습지 조사지침, 국립생태원, 2020

습지업무 한 권으로 알아보기, 국립생태원, 2024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 환경부, 2011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환경부, 2022

2023 갯벌면적조사, 해양수산부, 2023

습지보전법

경상남도환경재단(<http://www.gref.or.kr>)

람사르협약(<https://www.ramsar.org>)

에코뱅크 홈페이지(<https://www.nie-ecobank.kr>)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portal/main.do>)

한국습지학회(<https://www.kwetland.or.kr>)

우리가 알아야 할 습지

발행일 : 2025.12.10.

발행처 :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경남 창원군 이방면 이산길 38

저 자 : 김미정, 문호경, 차소란

I S B N : 979-11-6698-706-9

비매품

우리가
알아야 할
습지